

# 국내

## 기술로 프리프레스 이끈다

---

인쇄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모두 외국산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인쇄산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 있다. (주)아이디글로벌(대표 이우영), 회사명만으로는 생소한 회사라고 느껴지겠지만, 알티즌의 수메리큐시리즈를 제작했던 회사라면 금방 알 수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올해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직판체제와 대리점체제로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제품을 내놓음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

### 아웃소싱 통해 원가절감

아이디글로벌은 지난해 연말부터 숨가쁘게 돌아갔다.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직원 모두가 정신 없이 뛰고, 새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너나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움직였다. 이제는 신제품만 출시되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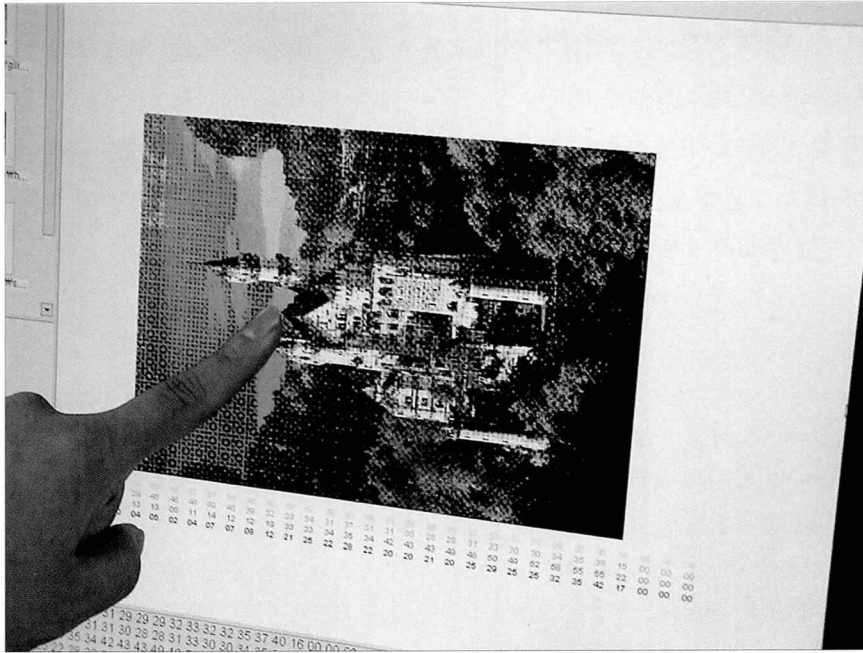
아이디글로벌, 다소 생소하겠지만 알티즌을 기억하는 인쇄인들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디글로벌이 알티즌은 아니다. 그러나 관계는 깊다.

아이디글로벌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전 알티즌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던 멤버들이다. 현재 알티즌 전 직원들은 여러 회사로 각각 독립을 해서 디지털프린터 관련회사, 반도체 검수장비회사, 그리고 프리프레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회사인 아이디글로벌 등으로 나뉘어져 각자 분야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알티즌의 이미지와는 관계 없이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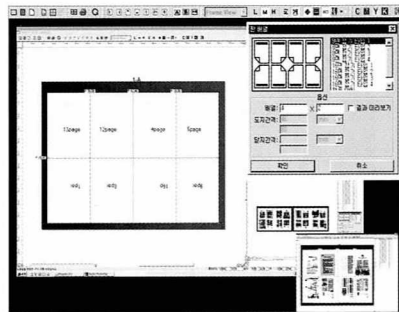
아이디글로벌은 기술개발부, 기획부, 영업부, 관리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



아이디글로벌의 CTP용 레이저 시스템 개발로 인해 국내 CTP 산업에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편 수입 대체효과를 올릴 수출까지도 가능하게 돼 CTP 장비는 물론 핵심기술인 레이저 시스템 수출까지 가능하게 된다.



구형 인쇄기계에 CIP3지원 기능을 가진 WinDot Autolook3(위)와 터잡기 소프트웨어인 WinDot Imposition(아래)



나 1인 다역을 소화해 내며 조직 슬림화와 아웃소싱을 철저히 해 원가절감에 성공, 이를 통해 고객센터 확대 및 기술 개발투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신제품의 출시와 함께 영업 방침도 직판체제 및 대리점체제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리점은 서울에 한 곳, 지방에 두 곳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 본격적인 영업력 강화로 아이디글로벌의 국산 CTP 판매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공동목표 위해 함께 달린다

아이디글로벌의 특징은 전 사원이 주주라는 것과 마라톤 매니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알티즌의 몰락과 함께 여러 회사로 나뉘어 독립하면서 인쇄분야는 2003년 3월 아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그 해 5월 (주)아이디글로벌로 법인 전환하면서 전 사원이 주주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전 사원이 1인 다역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비

록 수동 CTP이지만 2004년까지 국내 최다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 기술과 영업력을 살려 올해도 신제품을 앞세워 CTP 분야의 지존으로 남겠다는 것이 아이디글로벌의 목표다.

아이디글로벌의 또 다른 특징은 사원 대부분이 마라톤 매니아다. 물론 주력이 달라 마라톤대회에서도 42.195km 뿐만이 아니라 하프, 10km 등 저마다 목표는 다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구간 목표는 다르지만 연습은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팀웍이 강화되고 심신의 피로를 달림으로써 벗어 던질 수 있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아이디글로벌은 업무와 취미를 같이 한다는 것이 장점으

로 자리잡으면서 공동목표를 위해 전진하는데 한층 탄력이 붙어 올해를 자주적 독립에 의한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원년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 신기술 접목한 새로운 CTP '로제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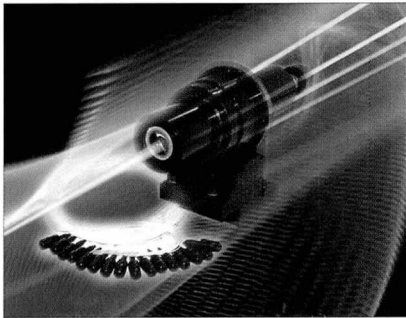
그동안 아이디글로벌에서 생산한 CTP는 수동이였다. 그래서 외국산 장비와는 차별화 된 영업전략을 가지고 승부해 왔다.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갈 때라고 판단, 오는 3월에는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반자동 CTP를 출시한다.

지난 199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 수동 CTP 장비는 이제 노후화되거나 타 장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등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의 공급을 요구받고 있었다. 게다가 이 수동 장비로 재미를 본 업체에서는 외국산 자동화 CTP로 전환하는 등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쨌든 국산 수동 CTP 장비로 인한 시장확대 효과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지만 이제는 고품질의 자동화 장비 필요성과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디글로벌은 오는 3월 로제타(Rosetta)라는 제품명의 반자동 CTP를 출시, 프리프레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로제타는 이집트의 로제타석에서 유래한 것으로, Rosetta Stone은 1799년 8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당시 나일강 하류의 로제타 지방 하구에서 포병사관인 부사르가 발견한 비석이다. 고대 이집트 문자인 히에로글리프(상형 문자), 디모틱(히에로글리프의 간이체인 민간문자) 및 그리스 문자로 같은 내용의 문장이 각각 상·중·하단의 3단으로 현무암에 조각되어 있어, 이들을



아이디글로벌은 CTP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닥폴리크롬그래픽스(KPG)사와 2004년 8월 'CTP용 레이저 시스템' 기술 이전 MOU 체결과 같은 해 10월 'CTP용 레이저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 올 상반기에는 아이디글로벌 자체적으로 레이저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다. 개발과 함께 아이디글로벌 자사 제품에 적용하는 한편 KPG에 OEM으로 수출하게 된다.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집트 문자해독의 열쇠가 되었다. 그리스 어문은 발견되자 곧 해독되었고, 2개의 이집트 어문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라는 표기의 분석과 다른 비명과의 비교연구에 의하여 프랑스의 상폴리옹이 처음 해독하였다. 아이디글로벌은 인쇄문화 산업 발전에 로제타석과 같은 가교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품명을 로제타로 선택했다.

새로 출시될 로제타는 자기부상 리니어 모터 채용, 레이저 시스템 국산화, 오토 밸런싱 기술적용, 임베딩 보드 채용 등으로 제작되는 세미 오토 CTP 시스템이다. 그래서 잔 고장이 없고 투자금액이 저렴하며, 설치공간을 최소화한 명실 환경용 CTP라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그리고 인쇄기 적성에 맞는 고품질 재현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신속하고 또한 저렴해 CTP 도입을 망설이는 인쇄인들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기종이다. 이밖에도 아이디글로벌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주문형 CTP 제작도 가능하다.

#### 레이저 · 소프트웨어 기술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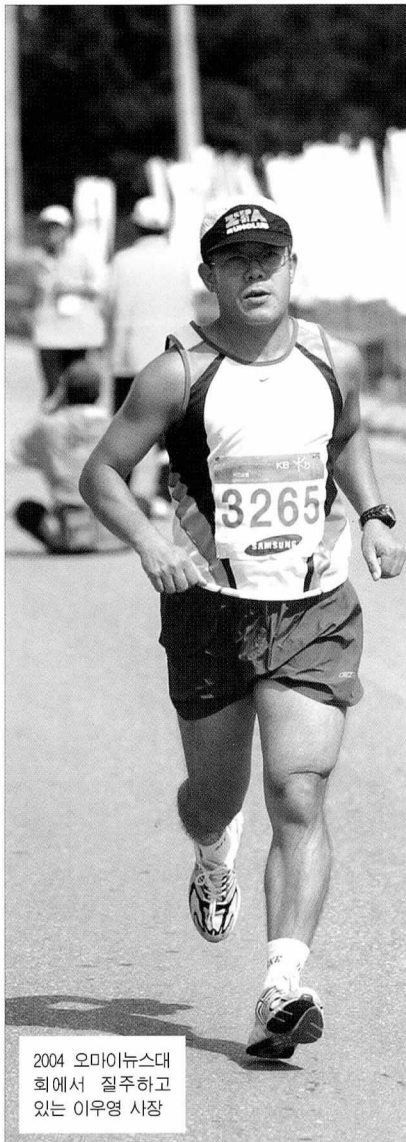
아이디글로벌은 CTP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닥폴리크롬그래픽스(KPG)사와 2004년 8월 'CTP용 레이저 시스템' 기술이전 MOU 체결과 같은 해 10월 'CTP용 레이저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 올 상반기에는 아이디글로벌 자체적으로 레이저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

다. 개발과 함께 아이디글로벌 자사 제품에 적용하는 한편 KPG에 OEM으로 수출하게 된다.

아이디글로벌의 CTP용 레이저 시스템 개발로 인해 국내 CTP 산업에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편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수출까지도 가능하게 돼 CTP 장비는 물론 핵심기술인 레이저 시스템 수출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디글로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이다. 윈닷 소프트웨어(WinDot Software)로 명명된 제품군에는 자동 판 배열 프로그램 WinDot Imposition, 혼합망점 프로그램(AM + FM = FAM) WinDot Scree, CIP3 프로그램 WinDot Autolook3 등이 있으며, 이 WinDot은 강력한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로 국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WinDot Autolook3는 구형 인쇄기계 CIP3 지원기능 소프트웨어로 인쇄기장은 인쇄기계 잉크키 값 전달장치(PQC) 주변에 설치되는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하여 인쇄물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CMYK 각 판의 잉크키 값을 육안으로 확인 후 PQC에 입력할 수 있는 독창적인 CIP 재현방식이다. 주요기능은 작업환경을 고려한 터치 스크린 모니터 기능, 터잡기(임포지션)된 데이터의 확인 기능, 각 판별 에러 유무 확인 기능, 작업지시서 활용 기능, 잉크키 값 입력 기능으로 인쇄회전률 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다.



2004 오마이뉴스대회에서 질주하고 있는 이우영 사장

# “원천기술 활용, 세계진출 꿈”

“고객에게는 고객만족을 통한 행복 추구, 주주에게는 가치·윤리 경영을 통한 이윤추구, 직원에게는 창의와 도전을 통한 자아실현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

이우영 아이디글로벌 대표는 고객, 주주, 직원 모두를 행복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 행복 극대화 경영이 목표이자 경영이념이라고 한다. 이우영 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로해운, 우진상사, 한맥섬유, 알티즌 등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알티즌 근무 당시 기획 및 재무 담당 이사를 역임한 것이 인연이 돼 현재의 아이디글로벌 대표가 됐다.

“비록 알티즌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디지털프린팅, 반도체 검수장비 그리고 프리프레스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현재의 아이디글로벌을 낳게 되었다. 그동안 알티즌이 다방면에 걸쳐 기술확산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알티즌 근무 시절 재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이 오히려 심적으로는 더 편안하다고까지 한다. 알티즌 근무 당시 과로와 흡연 등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나빠진 이 사장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매월 마라톤대회에 나갈 정도로 매니아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한

이우영 사장은 마라톤을 하듯이 아이디글로벌의 경영도 꾸준히 목표를 정해서 노력한다면 국산 기술이 한국을 넘어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하고 있다.



테까지 권해 지금은 대부분의 직원이 마라톤 매니아가 되었다. 직원들끼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한강변에서 마라톤을 하면서 읊주는 삼가고 있어 건강한 회사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사장의 마라톤 사랑은 가족 사랑으로까지 전파시켰다. 그 이유는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즐기게 돼 마라톤이 가족 사랑의 수호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간혹 지방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는 미리 숙박을 정해 놓고 대회 참가는 물론 가족 여행까지 겸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장의 취미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는 경우는 없다.

마라톤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맛을 들인 이 사장은 “누구든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대부분 이때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아쉬움이 있어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직원들에게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사장은 마라톤을 하듯이 아이디글로벌의 경영도 꾸준히 목표를 정해서 노력한다면 국산 기술이 한국을 넘어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하고 있다. 이 사장의 꿈은 원천기술을 활용한 세계 무대에서 아이디글로벌의 로고가 찬연히 빛나게 하는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아이디글로벌호를 움직여 나가는 이우영 사장의 눈빛에서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윤재호 부장〉